

맑키스트의 宗教意識 (三)

鄭東哲

三, 資本主義 下의 宗教

資本主義 社會에서는 푸로테스탄트敎 及 理神論의 物質的 根據를 論하기 前에 宗教史를 潮及하여 原始 「크리스도」敎의 社會的 運動을 考察하여 보자. 羅馬帝國의 基督教徒는 가장 危險한 革命黨이었다. 特히 軍隊 內에 蔓延되어 支配者 「카이자[케사르]」의 意思가 最高의 法律됨을 拒絶하기에까지 이르렀다. 實로 原始 「그리스도」敎는 社會的으로 廣範한 被搾取 勞動民衆의 精神的 武器인 同時에 敎義에 잇서서는 猶太神學과 通俗化한 希臘哲學 特히 「스토어[스토아]」哲學과의 混合物에 지나지 안헛섯스나, 그러나 社會的으로 보아서 그는 明瞭히 被壓迫者의 運動이 잇고 奴隸, □民 等 無權利者의 宗教로서 發達하였다. 이러한 勞動大衆을 隸屬과 窮地에서 ××하자는 點으로 보아서는 近世의 社會主義 運動과 類似한 點이 업지 안타. 中世紀에 잇서서 基督教는 被壓迫 農民과 都市의 無產平民을 抑壓하였섯고, 當時의 基督教徒의 地方團體는 今日의 「인터내슈넬[인터내셔널]」의 地方支部와 如한 親이 잇섯다. 「앵겔스」는 近世 資本主義 生産力法 中에서 必然히 產出된 社會主義와 「크리스트」敎와는 內的 連結을 갖는 것은 안나나, ×××者의 ××運動의 發展形態 上으로 보아서 比喩할 수가 잇다고 하였다. 그러나 佛蘭西 革命 以後 宗教의 衣裳을 묻는 階級××의 時代는 가고 宗教는 支配階級の 利用物로 下層階級을 制御하기 爲한 統治手段에 奉仕하거나, □觀念幻想의 □□世界에 退却하여 彼岸의 天國을 憧憬하는데 墜落하고 마렀다. 卽 基督教는 「크리스도」의 時代로부터 中世紀를 거쳐 近代에 至하기까지 進步的 階級을 爲하여 演한 바 殉情의 十字架의 精神을 일코 姑息의 自己慰安에 墜落하고 마렀다.